

여름 방학 숙제 조작단

이진하 글 | 정진희 그림

※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(www.sakyejul.net) > 한 학기 한 권 읽기 > 독서 지도안(초등)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학년 및 단원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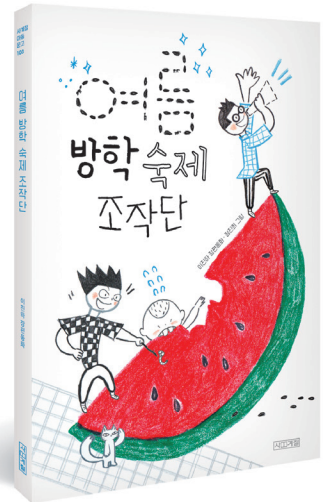
3학년 이상

주제어: #여름방학 #학교생활 #성장 #나 #친구

분야: 한국 창작동화, 생활동화, 장편동화

활용: 질문수업, 토의 토론

작성: 울진 노음초등학교 오은경 선생님



■ 활동 목표

- 여름 방학 계획표를 통해 방학을 잘 보낸다는 건 어떻게 지낸다는 건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.
- ‘여름 방학 숙제 조작단’이 진짜 배운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눈다.
- 토론을 통해 ‘여름 방학 숙제’와 ‘칭찬’에 대해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.
- ‘진짜 친구’란 무엇인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.

■ 들어 가며

여름 방학은 말만 들어도 신난다. 무더운 여름에 방학마저 없다면? 생각만 해도 목이 막히는 듯 답답하다. 그런데 이 여름 방학을 아이들이 그저 폭 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만두질 않는다. 아이들은 우선 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,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른이 바라는 ‘건강한 여름 방학 계획표’라는 통과 의례를 치러야만 한다.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한 달이나 되는 방학을 그저 놀게 둘 수 없다며 교사는 방학 숙제를, 부모는 학원 특강을 준비한다.

『여름 방학 숙제 조작단』은 유쾌하게, 멋지게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된 주인공들 덕분에 ‘배움’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. 물론 아주 재미있게 말이다. 여름 방학 전에는 물론이며 여름 방학 후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다.

독서 계획

단계	활동 내용	총 10차시
읽기 전	여름 방학, 어떻게 생각해? 1. ‘여름 방학’ 하면 떠오르는 낱말 써 보기 2. ‘여름 방학 숙제는 필요한가?’라는 주제로 토론하기 3. 내가 진짜 원하는 여름 방학 계획표 만들어 보기	2차시
읽는 중	조작단과 함께 숙제 조작하기 1. 제일 하기 싫은 방학 숙제를 골라라! 2. 조작단처럼 시 쓰기 3. 내가 관찰하고 싶은 것 4. 우리 동네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?	4차시
	네 생각을 말해 봐 1. 진짜 친구가 뭔데? 2. 상을 받을까? 못 받을까?	2차시
읽은 후	동화책 한 문장	2차시
	왜 상을 못 받았을까? 토론하기	
	준보, 경수, 구봉이에게 상장 주기	

읽기 전

● 여름 방학, 어떻게 생각해?

1. '여름 방학' 하면 떠오르는 낱말 써 보기

- 포스트잇에 '여름 방학' 하면 떠오르는 낱말을 하나씩 써 보게 하자.
- 어떤 낱말이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분류해 보자.
- '방학 숙제'라는 낱말이 나오면 이 낱말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감정 낱말을 또 써 보자.
- '방학 숙제' 주변에 감정 낱말을 붙이면서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.

2. '여름 방학 숙제는 필요한가?'라는 주제로 토론하기

- '여름 방학 숙제는 필요하다.'와 '그렇지 않다.'로 의견을 나눈다. 이때 토론할 주제가 '여름 방학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.'가 아님을 유의한다. 처음부터 '필요하지 않다.' 쪽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그렇게 예상이 되면 토론 수업처럼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뽑기를 해서 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팀을 정해도 된다.
- <필요하다>와 <필요하지 않다>로 팀을 나누어 팀별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 정도 찾아서 정리하여 발표한다. 발표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 좋지만 경쟁 토론처럼 지나치게 압박을 주지 않는다.
- 서로의 내용을 듣고 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.
- 학생 수에 따라 모둠으로 발표해도 되고 대표를 정해서 진행해도 된다.
- 토론 방법은 교사와 학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.
- 토론 후에 진짜 자기 의견을 <필요하다>와 <필요하지 않다>로 표현해 보자.

3. 내가 진짜 원하는 여름 방학 계획표 만들어 보기

- 일률적인 여름 방학 계획표(어른맞춤형 계획표)와 준보의 진짜 마음 계획표(본문 8쪽)를 보여 주고 어떤지 살펴 보자.
- 이번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여름 방학 계획표를 만들어 보자.
- 둥근 모양의 계획표를 주지 않고 아래와 같은 질문이 적힌 종이를 쥐 보자.

1. 여름 방학 기간을 적어 보세요.
2. 지금 나는 여름 방학을 왜 (기다리고, 기다리지 않고) 있나요?
3. 이번 여름 방학 때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?
4. 이번 여름 방학 때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?
5.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?
6. 날마다 (노력)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
7. 나 ()은 이번 여름 방학 때 ()을 꼭 해 보고 싶다.
그러기 위해서 나는 ()가 필요하다. 나는 여름 방학이 끝났을 때 () 싶다.

- 종이를 붙여서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.

● **조작단과 함께 숙제 조작하기**

1. 제일 하기 싫은 방학 숙제를 골라라!

- 준보의 <방학 숙제 안내문>과 준보가 숙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(본문 12쪽) 아이들이 가장 하기 싫은 숙제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.
- 꼭 준보의 숙제 안내문에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에서 하기 싫었던 숙제를 찾아서 말해 보게 하자.
- 교사로서 자기의 의견 또는 반성하는 말을 해 주어도 좋다.
- 게임기를 사 주겠다는 엄마의 제안으로 준보는 세 가지 숙제를 고르게 되는데, '나라면 어떤 숙제를 골랐을까?' 라는 질문을 던져 세 가지를 골라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두고 책을 계속 읽는다.

2. 조작단처럼 시 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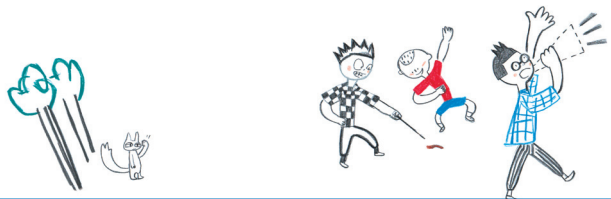
- 「여름의 모든 것」(본문 42~43쪽) 시를 읽고 우리도 함께 시를 써 보자.
- '지금 제일 많이 드는 생각'을 물어보고 모둠별로 세 아이들처럼 돌아가며 말해 보면서 협동시를 완성해 본다.
- 완성된 시를 종이에 잘 써서 발표하고 소감을 나눈다.

3. 내가 관찰하고 싶은 것

- 76쪽까지 읽고 엄마, 똥, 과일을 관찰하기로 한 아이들처럼 나라면 어떤 것을 관찰해 볼지 찾아보자. 관찰 보고서를 실제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짝이나 모둠별로 의논해서 무엇을 어떤 주제로 관찰해 보면 어떨까, '똥: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내 똥이 어떻게 달라질까?' 하는 정도로 결정하면 된다.
- 정한 내용을 긴 종이에 써서 칠판에 붙여 놓고 간단하게 의견을 나눈다.
- 나온 내용들 중에 진짜 관찰해 보고 싶은 것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교과 시간과 연계하여 직접 해 보면 더욱 좋겠다.

4. 우리 동네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?

- 127쪽까지 읽고 지하철 전시회, 마을 도서관, 우리 동네 버스 여행을 하고 체험 학습 보고서를 쓰기로 한 아이들처럼 우리 동네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한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 의논해 본다.
- 발상을 다양하게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. 예를 들어 우리 마을 관광지,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나 공원, 도서관(책뿐 아니라 장난감 등 주제가 다양하다.),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과 같이 평소에는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 생각하지 못했던 곳도 주제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.
- 이번에는 찾아보기만 하고 함께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다음에 같이 가 보면 훨씬 좋겠다.



● 네 생각을 말해 봐

1. 진짜 친구가 뭔데?

- 141쪽까지 읽고 '진짜 친구가 뭔데?'라는 준보의 질문에 대답을 해 보자.
- '진짜 친구는 _____다' 문장을 채워 본다.
- 아이들이 각자 말한 문장을 잘 적어서 교실에 붙여 두자.

2. 상을 받을까? 못 받을까?

- 151쪽까지 읽은 뒤 '세 아이들은 상을 받을까, 못 받을까?' 물어본다. 책을 다 읽은 후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간단하게 손 들거나 스티커로 표현해 보고 이유를 간단하게 듣는다.

읽은 후

● 동화책 속 한 문장

- 이 책에 나오는 세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 주는 문장들이 많다. 그중에서 현실에서 꼭 말해 보고 싶은 문장을 찾아보자. '다시 읽는 명문장'이라는 제목의 큰 종이에 아이들이 찾은 문장을 써 본다.

● 왜 상을 못 받았을까? 토론하기

- 세 아이들은 왜 상을 못 받았을까? 무엇이 부족했을까? 또는 심사위원(교사)은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? 라는 주제로 모둠별로 의견을 나눈다. 이때는 모둠 안에서 반드시 한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고 모둠원의 생각을 모두 작은 칠판이나 4절지에 다 적어 둔다. 비슷한 의견이어도 된다.
- 모둠원이 말한 의견을 모두 포함하도록 문장을 정리해 본다. 각 모둠의 의견을 발표한다.
- '세 아이들이 여름 방학 숙제를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일까?'라는 질문에 같은 방법으로 모둠별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한다.

● 준보, 경수, 구봉이에게 상장 주기

- 준보, 경수, 구봉이의 여름 방학 생활과 마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상장을 만들어 보자. 등위를 매기는 상장이 아니라 이번 여름 방학 때 알게 된 것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상장을 만들어 보자.
- 상장의 형식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.
- 만든 상장을 제비뽑기로 정한 아이나 그 상장 내용에 가장 어울리는 아이, 또는 원하는 아이에게 직접 읽어 주고 전해 주자.
- 『여름 방학 숙제 조각단』 함께 읽기 기념으로 다 함께 신나게 놀자.